

가축식량을 왜 차에 먹이나?



김 정 인
(주)SCF 부회장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각 산업 부문별로 손익계산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한미 FTA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손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사료산업의 경우 값싼 미국 축산물로 인한 가축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해 사료수요의 감소와 가격경쟁의 심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육류 수입이 자유화된 1993년이래 배합사료생산량이 26백만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4백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사료수요량이 10.9%나 급락한 후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업계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한미 FTA의 파장과 함께 우리 축산 사료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미 보도

를 통해 알고있겠지만 지난해 이후 옥수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원료가 천정부지로 급등하며 배합사료가격상승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수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고, 대두박, 소맥피, 채종박, 면실박, 유장분말등 모든 기타 사료원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사료원료 가격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유가급등이후 전세계적으로 식량작물인 옥수수, 대두, 채종실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이 확산되면서 곡물의 수급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미국은 에탄올 생산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부시 대통령의 지원하에 에탄올 생산을 2006년 현재 40억 갤론에서 2012년까지 75억 갤론으로 늘려갈 계획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110개의 에탄올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8개공장이 증설중에 있고, 73개 공

장이 신축중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옥수수의 수급불안과 고가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옥수수 가격의 고가현상으로 인한 미국내 옥수수 식부면적이 15%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발표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콘벨트지역의 옥수수파종이 진행중에 있고, 설령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수급 불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부산물로 생산되는 DDGS(주정박) 역시 일부에서 사료원료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아직 원료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향후 10년안에 석유소비를 20% 줄이고 대신 에탄올 소비를 7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려면 미국은 현재 4억 에이커의 농지에 추가로 3억 5천만 에이커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면서 인류의 식량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한 향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의 상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한미 FTA 타결로 가뜰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 농민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축농민 뿐만아니라 사료업계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즉, 배합사료의 개념도 그동안의 효율이 좋은 사료에서 이제는 경제성이 높은 사료, 즉 축산물 단위당 최저 생산비를 추구하는 사료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업계에서도 옥수수 일변도의 사료에서 다양한 원료를 개발하여 원가를 낮추어 나가고,

생산농가들도 특수사료를 통한 고급육이나 고급란등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양축농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같은 고곡가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모든 농민이 다함께 겪고 있는 일인만큼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한국사료협회에서도 이 같은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최근 모든 회원사가 함께 옥수수의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섭력을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장기적인 물량 확보를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사료원료의 신규자원개발이나 일본의 배합사료 안정기금과 같은 제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사료협회를 방문한 일본 농림성과 일본 농협(젠노)의 관계자들 뿐만아니라 대만의 사료협회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사료곡물의 연료화 추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수입국인 일본, 대만, 한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제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곡물의 전통적인 고객인 3대 수입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에탄올 생산을 위해 옥수수등 곡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한미 FTA라는 전혀 겪어 보지 못한 파고와 함께 고곡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양축가, 사료업계, 정부가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나 저리의 사료원료 구매자금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사료업계나 양축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정부와 사료업계 양축농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구책을 모색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축산·사료산업에도 새로운 희망이 다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